EXHIBITION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28 JULY–8 OCT, 2023

박미나

2023.7.28
—10.8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

MEENA PARK

NINE COLORS & NINE FURNITURE

ATELIER
HERMÈS

CREATE

컬러 스트라이프와 다이어그램

안소연 / 아티스틱 디렉터

2023년 여름, 아뜰리에 에르메스의 개인전에서 박미나는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라는 전시 제목이 지시하는 아홉 점의 신작 회화를 선보인다. 이는 정확히 19년 전에 발표했던 동일한 회화 프로젝트를 재개한 작업인데, 일견 규모의 확대 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형식 실험이 더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시는 중견 작가가 자신의 작업 연대기를 거슬러 올라 대표작을 재연한 것 정도로 간단히 평가할 수 없는, 여전히 강렬하고 신선한 시각적, 개념적 자극과 함께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밀도를 과시한다. 다시 말해, 현재 시점에서 박미나의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를 마주하는 일은 2000년대 초반에 신세대 미술가로 주목받았던 작가의 당찬 방법론적 제안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며, 시차를 두고 프로젝트를 재개할 만큼 두 버전 사이에는 유의미한 미학적, 사회학적 변화가 개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박미나는 회화의 기본 요소인 색채와 형상을 어느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탐구해 온 화가이다. 심지어 붓질하기를 포함한 다양한 그리기의 과정에 개인차가 기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수의 도움 없이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홀로 수행하는 화가이기도 하다. 다만 그 결과물이 어떠한 개성적인 혼색도 시도하지 않은 물감 그대로의 나열이거나 이미 존재하는 도상들을 차용한 것이기에 깊이나 주관성, 상징이나 서사 등 관습적으로 회화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대신 그의 납작하고 단순하며 대범하기조차 한 원색과 도안의 향연은 현대미술 상황에 대응하는 하나의 명료한 발언이자 회화의 형식에 대한 새로운 비평적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작가는 뉴미디어의 상용화로 기존 이미지가 하나의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영구히 순환함으로써 이미지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뀐 이 시대에 과연 회화 매체의 고유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 자문한다. 그는 물감과 붓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이미지의 제작 방식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동시대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흐름에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포스트 미디엄’의 상황에서 그가 자신 회화의 ‘기술적 지지체’로 삼은 것은 바로 남다른 수집 행위라 할 수 있고, 면밀한 조사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시판되는 물감이나 유통되는 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일에 몰두한다. 수집된 일련의 데이터들은 ‘대안적 시나리오’라 불려도 무방할 작가의 고유한 작업 시스템에 따라 소위 ‘포스트 프로덕션’의 단계를 거쳐 회화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때 단순해 보이는 도상이나 색상 팔레트 이면에는 자본주의 산업 시스템에서부터 인지 심리학, 미술사와 미술교육, 컴퓨터 언어와 하위문화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시각문화적 맥락이 연루된다.

1999년 이래 박미나는 *집*, *하늘*, *색칠공부 드로잉*, *스크림(Scream)*, *색채 수집*, *딩뱃 회화* 등, 개념적으로 새로운 회화 연작을 다수 제안해 왔는데, 물감 수집은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자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의 습벽과도 무관하지 않다. 회화용 물감에서부터 가정용 페인트, 색연필, 볼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료가 수집의 대상으로 망라되고, 그 가운데 단일한 안료로는 가장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 수집된 결과가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2023) 연작으로 드러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컬러 스트라이프와 가구 다이어그램이 쌍을 이루는 이 연작의 시작은 2003년의 *오렌지 페인팅*이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의 과열 이후 늘어난 유동자금이 미술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미술투자 붐이 일었을 때, 어느 갤러리스트에게서 ‘오렌지 페인팅’이 있는지 문의를 받은 것이 작업의 단초가 되었다. 현실에서 예술작품의 한정된 용도나 색에 대한 구매자의 취향, 인테리어 트렌드가 반영된 지극히 세속적인 이 에피소드에서 작가가 보다 집중하게 된 것은 ‘오렌지’로 명명되는 색에 대한 탐구였다. 학창시절부터 가시적인 세계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오류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오렌지 물감을 모두 수집해 보기로 결심하는데, 그 결과 관념화 된 색의 인지가 얼마나 관행적이며 현실과 부조화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물감들은 3cm 두께로 칠해져 당시 유행하던 2인용 소파 크기에 맞는 가로형 스트라이프 페인팅으로 완성되었다.

오렌지 색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색을 분류하는 아홉 가지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2004년 ‘*아홉 개의 색과 가구*’로, 그리고 이번 전시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 로 진화한다. 아홉 개의 색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자주색 등 원색 계열에 흰색, 회색, 검정 등 무채색을 더한 것으로 다양한 크기의 가구 도형과 짝을 맞추어 완성된다. 수집가의 아파트 거실에 최적화된 *오렌지 페인팅*과는 달리, 가상의 모델하우스를 구상한 이 프로젝트는 작업 당시의 주거문화와 사회상을 여실히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04년 버전의 경우,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거로 선호되던 시점에서 이들 아파트의 통상적인 천장고 230cm를 기준삼아 세로 길이 227cm의 회화들로 완성됐다. 당시 수집 가능했던 총 632개의 물감은 제조사 순서대로 2cm 두께의 스트라이프로 칠해진 뒤, 물감 숫자의 규모에 부합하는, 다양한 크기의 보편화된 가정용 가구 도형과 결합하여 제시되었다.

박미나의 작업은 현대 회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재료학에 대한 탐사이자 동시대에 대한 사회학적 리서치인 까닭에 리얼리즘 회화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는 결코 과언이 아니다. 2023년판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 전시에는 작업이 재개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가 압축적으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2004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일인당 국민소득의 지표에 걸맞게 시각 영역의 다양성도 확장되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물감의 가짓수 역시 두배 가까이 많아졌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수집한 물감은 총 1134개에 이른다. 특히 2010년이후 SNS의 상용화로 럭셔리 소비재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고급화된 주거와 그에 부합하는 고급 가구들이 일상의 눈요기거리가 된 현실을 반영한다. 그것은 우리의 평균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미 정보로서 대중화된 우리시대의 욕망의 대상들인 것이다.

작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인 아파트의 내부를 리서치하면서 천장의 높이가 최소 30cm이상 높아진 점을 발견한다. 또한 아파트 분양 광고에 이미 공간에 맞게 선별된 가구들이 함께 광고되고, 럭셔리 잡지에는 컬렉션 가구가 단골 특집기사로 오르며, SNS에는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이 현대인의 진정한 ‘플렉스’라는 사실을 파악한다. 그에 따라 작가는 수집한 물감의 개수를 평균 1.5cm 너비의 세로줄로 칠했을 때 (레드와 블루만 예외적으로 가로줄이다) 그 폭에 들어맞는 사이즈의 특정 제품을 고심해서 선정했다.

COLORED STRIPES AND DIAGRAMS

SOYEON AHN / ARTISTIC DIRECTOR

In her solo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MeeNa Park presents nine new paintings titled *Nine Colors & Nine Furniture*, which is also the title of the exhibition. A resumption of a project she presented 19 years ago, these new works may not render any new formal experimentations except the enlarged scale at first glance. But as the viewers would gradually grasp, they are not a mere reenactment of an old work by a mid-career artist. The exhibition testifies to a practice that is still fresh, intense, as well as visually and conceptually stimulating, coupled with a more solid density than ever before. *Nine Colors & Nine Furniture* (2023) not only confirms that the bold methodological proposition Park made as an outstanding up-and-coming painter in the early 2000s is still valid, but also clarifies that her resumption of her early project is due to significant aesthetic and sociological changes.

Park is a painter who, more intensively than anyone else, has consistently studied color and form—two basic elements of painting. She makes works by herself, performing all the labor-intensive processes without the help of assistants, to avoid any gaps that might be caused by different hands involved in the various production processes which include drawing and brushing. However, through her meticulous process, the artist creates paintings that are arrays of unmixed paints or borrowed images, devoid of what are conventionally expected of paintings such as subjectivity, depth, symbolism, and narrative. She presents the boldly flat banquet of primary colors and simple designs as a new critical alternative to painting and a statement on the shifting currents of contemporary art.

Witnessing a new era where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media has changed the paradigm of imag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where images are permanently circulated through endless mediation, the artist asks herself how the uniqueness of the painting medium can be maintained. While persisting to employ paint and brush, she sharply catches what’s contemporary in the ways that image production creates databases, and she rides on the wave. In this post-medium circumstance, she utilizes her peculiar collecting habit as well as her painting’s technical support; she concentrates herself on collecting all commercially available paints and widely circulating designs, based on her scrupulous research. Then she turns the collected data into painting works through her unique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system that can be called an “alternative scenario.” Behind the seemingly simple images and color palette lie a complex variety of contemporary social and visual cultural contexts, such as capitalist industrial system, cognitive psychology, art history and art education, computer language, and subculture.

Since 1999, the artist has been producing conceptually original series of paintings such as *House*, *Sky*, *Coloring Book Drawing*, *Scream*, *Color Collecting*, and *Dingbat* series. Her key method that encompasses these different series is color collecting, which is connected to her chronic habit. She collects colors somewhat habitually, pursuing a wide variety of pigments, from fine art paints and house paints to colored pencils, ballpoint pens, and cosmetics. *Nine Colors & Nine Furniture* (2023) embodies the broadest spectrum of colors from a single pigment.

Her series in which colored stripes are paired with furniture diagrams is traced to her *Orange Painting* (2003). As it’s well known, her creation of *Orange Painting* started with a phone call from a gallerist asking if she has any “orange painting.” The early 2000s was when art investment was booming in Korea, as liquid funds that had increased after the real estate market’s overheating was flowing into the art market. From this extremely secular episode that involves the limited use of artworks in reality, the buyers’ color preferences, and the interior trends, Park came to concentrate herself on the exploration of “orange” colors. While, since her school days, she had been interested in the inevitable errors occurring in our perception of the visible world, she decided to collect all the orange paints available on the market. Eventually, the research confirmed her that the perception of ideated colors is conventional and incongruent with reality. Applying those paints one by one, she painted 3cm-wide vertical stripes on a canvas that she found suitable for the size of a two-seater sofa — which was popular at the time.

The project evolved to encompass the nine categories that are commonly used to categorize colors, resulting in her productions of *Nine Colors and Furniture* (2004) and *Nine Colors & Nine Furniture* (2023). The nine colors are primary colors such a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and Violet, plus the achromatic colors White, Gray, and Black. And they are paired with diagrams of furniture of various sizes. While *Orange Painting* (2003) was conceptually optimized for a collector’s apartment living room, the 2004 work was conceived as a virtual model house to reflect on the time’s residential culture and its social aspects. When Gangnam’s branded apartment complexes were becoming ideal residences for the middle class and based on the fact that those apartments’ typical ceiling height is 230 cm, Park employed 227 cm-high canvases, on which she applied the 632 collected paints as 2 cm-wide stripes in the order of the manufacturers. Then she paired each striped painting with an image of a common domestic furniture piece of the size that corresponds to the number of the paints applied.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argue that Park’s work is a realist painting as it is both an exploration of material science—a rare topic in contemporary art—and sociological research on the contemporary era. This is epitomized by her new *Nine Colors & Nine Furniture* (2023),

그 결과 옐로우 물감 234개와 옷장, 그린 물감 234개와 소파, 블루 물감 202개와 침대, 레드 물감 154개와 TV 유닛, 바이올렛 물감 81개와 라운지 체어, 오렌지 물감 72개와 소파, 그레이 물감 66개와 테이블, 블랙 물감 46개와 커피 테이블, 화이트 물감 45개와 오토만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대량생산된 가구들에 비해 곡선의 비중이 늘어난 하이엔드 가구의 다이어그램은 제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실물 사이즈로 재현되며 특정 컬러 스트라이프와 짝을 이뤄 257cm 높이의 회화 아홉 점으로 완성되었다.

일련의 '컬러-가구' 작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컬러의 명칭에 절대 부합할 수 없을 것 같은 물감의 존재들이다. 혹시라도 유사한 색들 간의 시각적 변별력을 높일 요량으로 임의로 별색을 삽입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어울리지 않는 색들이 그것인데, 작가는 캔버스에 칠해진 물감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한 물감 리스트를 하나의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이런 의구심에 대응한다. 그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물감들을 수집해 제조사와 물감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기계처럼 정확하게 캔버스에 적용했던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자연을 최대한 재현해 내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의 물감 색이 인간의 시지각적 판단에 근거한 보편적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물감을 제조하고 판매, 유통하는 산업의 시스템이 구축한 정보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의 수집 목록에는 미국의 건축자재 판매 기업인 홈디포가 DIY용 페인트를 홍보하기 위해 배포하는 색상 스와치도 포함되는데, 물감 색의 종류와 그들을 지칭하는 명칭 간의 기묘한 조합도 작가의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파란 색을 지칭하는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 선원의 꿈(Sailor's Dream), 부적(Talisman) 따위나 자주색에 쓰이는 엘리트(Elite), 영원(Eternity), 장엄함(Grandeur), 그럴듯함(Looking Good) 등의 추상적인 명칭들이 그것이다. 작가는 색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욕망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략이 어떻게 인간의 인지 행위를 좌우하는지 담담하게 제시한다. 색상 견본을 펀치로 조각 내어 시적인 색의 명칭들과 나란히 배치한 작업은 하나의 기록물이자 추상화, 개념미술 작업으로서 현실의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반추한다.

전시장에서 작품들의 배치는 아파트의 동선을 참조한다. 현관에 해당하는 입구 쪽 분리된 공간에 물감 리스트의 아카이브를 두고, 이어서 실내로 이어져 조명이 조절된 공간에는 거실, 마스터룸, 침실, 드레스룸의 순서로 공간과 가구를 배치하듯 회화 작품을 걸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는 총 1134종의 물감을 붓으로 직접 칠하면서 캔버스 화면에 회화의 물리적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작업은 회화 매체로의 환원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화면 내부에 이미 가구가 놓이는 공간과 그 위에 그림이 걸리는 공간을 내포하는 각각의 캔버스가 실제 공간에서 가구와 그림이 어울려 배치될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전시를 하나의 설치미술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박미나의 작업은 회화의 영역에서 매체의 특수성을 방어하면서도 '확장된 장'으로 나아가는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which clearly deliver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that Korea underwent over the last 19 years. In line with the more than doubled per capital income, the diversity of visual cultures has also expanded and is reflected in the doubled number of available paints. The exhibition unfolds a total of 1134 paints collected by the artist. In particular, the new work reflects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high-end homes and furniture on the social media.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networking sites since 2010, information on luxury consumer goods endlessly flows into our reality. Though far from our average daily lives, the goods, as popularized by information, have become objects of desire that define our era.

Investigating the interiors of Korea's currently most expensive apartment, Park found that the ceiling height has risen by at least 30 cm. She has also learned that luxury apartment sales advertisements promote pre-selected furniture for the homes, collection furniture are regularly featured in luxury magazines. And that, showing off one's home interior on social media is considered the true "flex" these days. Accordingly, the artist meticulously selected specific famous brand furniture pieces, of the size that corresponds to the width of the canvas that has been filled with the collected paints, each comprising a 1.5 cm-wide vertical stripe (except for the Red and the Blue paintings that are comprised of horizontal stripes). As a result, *Nine Colors & Nine Furniture* consists of: 234 yellow paints and a wardrobe; 234 green paints and a sofa; 202 blue paints and a bed; 154 red paints and a TV Unit; 81 violet paints and a lounge chair; 72 orange paints and a sofa; 66 gray paints and a table; 46 black paints and a coffee table; 45 white paints and a ottoman. For the high-end furniture piec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ample curves compared to mass-produced furniture, the artist downloaded their diagrams from the product websites and reproduced them in full size to be paired with the 257 cm-high canvases. What draws attention in her "Color-Furniture" series is the inclusion of paints that are unlikely to match the paints names. Some colors appear so incongruent they raise doubts whether spot colors have been inserted to arbitrarily increase distinction between similar paints. Park prevents such doubts by presenting as evidence a full list of her collection in which each and every paint applied is documented in order. She has obtained all the paints which has same names of colors ,and has precisely and systematically applied them onto canvases in the alphabetical order of the manufacturers' and colors' names. What we learn from her work is that the artificial paint colors, produced to represent nature as much as possible, are not results of universal agreement on human visual perception. Rather, we passively consume and accept the information constructed by the industrial system that manufactures, merchandises, and distributes paints.

Included in the artist's collection list are Home Depot's color swatches, which the American building materials retailer distributes to advertise their DIY paint. Park has been intrigued by their odd combination between the color types and the names. For example, their blue paints have names such as "Pursuit of Happiness," "Sailor's Dream," and "Talisman," and their magenta paints have such abstract names as "Elite," "Eternity," "Grandeur," and "Looking Good." Resulting from her inquiry into the world of paints, Park's work reveals to us how subjective our conception of color can be, and how influential the corporate strategies to manipulate desires and consumption can be to our cognitive behaviors. Park's placement of the works inside the exhibition refers to the layout of apartment homes. The exhibition begins with the list of paints placed at the entrance, and continues inside where a living room, a master room, a bedroom, and a dressing room appear in sequence under controlled lightings. As mentioned, the artist applied the total of 1134 paints with a brush all by herself, seeking to reflect the material properties on the canvas surfaces as much as possible — a hope for a return to the medium of painting. However, the work has progressed in a different direction. Connoting its position in relation to furniture in a residential space, each work is further displayed in harmony with a furniture which offer together an interior design tip. As such, Park has transformed the exhibition into an installation artwork. It is exceptional to see how her work advances to the expanded field while defending painting's medium specificity.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

작가와의 대화

안소연 이번 개인전을 구성한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 작업은 작가가 거의 20년 전에 시도한 적이 있었던 같은 형식의 시리즈를 재개한 것이면서 그것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 시차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박미나 다른 연작의 작품과 다르게 *색-가구(Color-Furniture)*는 2004년 국제갤러리에서 한 번 전시했던 유일한 작품군(series)입니다. 작품군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언젠가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작업해 보고 싶었습니다. 2023년 주거환경, 물감회사, 가구 소비패턴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19년간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주거환경과 공간에 대한 인식, SNS와 소비 방식 등이 어떻게 회화의 작품 크기, 색상의 범위와 전시 공간과 생활 공간의 경계등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조사·분류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소연 2004년에 수집했던 물감과 2023년 현재 시판되는 물감들 사이에는 물량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표기면에서 가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박미나 한국에서 시판되는 물감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재료로 삼고 있는데, 2004년과 물감의 개수를 수적으로만 비교하면 15개 브랜드, 632개 물감에서 2023년은 각각 19개, 1134개로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5개가 국내, 14개가 해외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시넬리에(Sennelier) 아크릴물감의 경우 아티스트 퀄리티 아크릴릭(Artists' Quality Acrylic)은 수입하지 않고, 앱스트랙(Abstract) 계열이 들어오는 등 외국과 다릅니다. 물감은 통상적으로 성분 표기가 정교하거나 안료명이라면(전문가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골든(Golden)사 경우에도 커스텀 페인트(Custom Paint) 등의 새로운 여러 변화를 보면 성분이나 표기 구분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큰 변화는 세계적인 의류업체가 여러 브랜드를 가지는 초대형기업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2023년 5월 콜아트(Colart)이라는 스웨덴 그룹이 영국 물감회사 윈저앤뉴튼(Winsor & Newton), 미국회사 리퀴텍스(Liquitex), 프랑스회사 르프랑(Lefranc Bourgeois) 등 5개 회사를 인수 합병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안소연 물감의 특성이나 색상을 분류하는 규율, 인지 방법 등은 회화를 구성하는 기본 조건에 대한 탐색으로, 이 조건을 회화의 형식으로 상정한 것은 역사적 아방가르드들이 평면 조건을 회화의 형식으로 탐구했던 것과도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감을 자의적으로 혼색하지 않고 튜브에서 나온 그대로 캔버스에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상은 '재현'이라는 회화의 또 다른 요소를 소환합니다. 채색을 근간으로 하는

NINE COLORS & NINE FURNITURE

Conversation with the Artist

Soyeon AHN *Nine Colors & Nine Furniture*, which compose this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appears to resume a series of works you did about 20 years ago and is an extension of it. Those were important works for you as an artist, so I'm glad to see you're revisiting them. Would you tell us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time gap?

MeeNa PARK Unlike other series, *Color-Furniture* is the only series I've exhibited once, in 2004 at Kukje Gallery. Because I thought of it as a series, I've been looking to coming back to it when a change rises. In 2023, I perceiv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paint industry, and the pattern of furniture consumption. It led me to want to investigate and classify the changes in values caused by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transformation over the last 19 years, the shift in the perception of spac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and if and how SNS and consumption trends can be reflected in the size of paintings, the range of colors, and the boundary between exhibition space and living space.

Soyeon AHN The differences you've found between the paints you researched in 2004 and those on the market now in 2023 are not only in quantity but also in the ingredients and the manner of labeling.

MeeNa PARK I'm researching—and employing as my materials—all the paints that are now commercially available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paints available back in 2004, the number has doubled, from 632 colors from 15 brands to 1134 colors from 19 brands. Of them, 5 are domestic brands and 14 are foreign brands. Imported paints are selective; for example, in the case of Sennelier's acrylic paints, its Abstract line is imported, but not its Artists' Quality Acrylic line. Conventionally, paints' ingredients used to be marked in detail, and from the specified pigment names, we could tell if it was for professional use. But these days, several new changes, for example Golden producing its own Custom Paint line, indicates the coming of a new era where ingredient labeling, or classification has become meaningless. Another interesting change is that, just as a global apparel company owning several brands grows into a transnational megacorporation, in May 2023, a Swedish group called Colart acquired and merged five companies including the British paint company Winsor & Newton, the US company Liquitex, and the French company Lefranc Bourgeois.

이 작업에서 화가로서 어떤 제안을 하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박미나 현재 튜브 물감은 안료와는 다르게 여타 소비재를 선택하는 것과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상'과 같이 '새로운 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많이 없어집니다. '재현'이라는 개념이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햇빛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해 내며, 작가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나, 현재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물감을 시대의 '가용 범위'로서, 빠짐없이 기록하는 '재현'의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였습니다.

안소연 작업은 모두 아홉 개의 색으로 분류됩니다. 이 아홉 개의 카테고리란 컬러를 분류하는 보편적인 방식이기도 한데요,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색의 구분과 나열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과거 테크노컬러의 등장을 시작으로 오늘날 메타버스 등 시각장의 확장과도 무관하지 않겠지요?

박미나 네온 같은 형광과 펄이 들어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이리디센트(iridescent), 인터퍼런스(interference)는 특정 회사에서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많은 수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각 경험을 물감으로 재현하려는 시도와 합성수지, 합성 고분자 안료의 발전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개의 색의 카테고리는 검은색(Black), 파란색(Blue), 녹색(Green), 회색(Gray), 오렌지색(Orange), 빨간색(Red), 보라색(Violet), 흰색(White), 노란색(Yellow)입니다. 분류해서 묶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사용되는 색이름을 찾은 결과로 *색상의 명칭들*에는 갈색(Brown)이 있는데 물감에는 없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오커(Ocher), 시에나(Sienna), 엄버(Umber)등과 같이 '흙'의 안료명으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안소연 이번 전시가 다중의 층위를 갖는 이유는 단순해 보이는 이 작업에 압축된 작가 개인차원의 조사, 수집, 노동 외에도 물질, 산업 시스템, 구조화된 언어, 사회적 관행 등, 캔버스 바깥의 사회 문화적 이슈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1134종의 물감과 명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9점의 수제 포스터가 그것인데요, 물감의 명칭들은 시각적 정보라기보다는 문학적 묘사나 시구에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나 1134개 물감을 정렬한 *2023-색-리스트*와 1997년 *색상의 명칭들*은 시차도 있지만, 객관적인 분류법과 주관적인 분류 방식, 미술가용 물감과 인테리어용 페인트로 크게 구분됩니다. 먼저 *2023-검은색-리스트*와 같은 9개의 포스터는 물감 회사와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 것으로 A1 전지에 실크스크린 한 후 해당 이름 옆에 붓으로 칠한 작업입니다. 1997년 처음 만든 20점은 레터(Letter) 사이즈 종이에 잉크젯프린트한 다음 펀치로 페인트 색상 스와치 일부를 잘라서 붙인 작업으로 이번에 재제작하였습니다. 미국 건축자재 판매 기업인 홈디포에서 디아이와이(DIY)를 하는 비전문가를 위해 페인트를 사용하면 연출될 수 있는 인테리어 분위기를 시적인 감수성으로 상상 가능케 만든 노력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주관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분류하였고, 색상의 미묘한 차이를 노란색으로 또는 흰색으로 분류하며 어디까지를 흰색으로 볼 것인지, 어떤 단계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할 것인지 결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스튜디오 화이트(Design Studio White), 정원 장미

Soyeon AHN Your formulating and classifying of paints' properties, such as colors, is an exploration of the basic conditions of painting, and can be compared to historical avant-garde artists' exploration of flatness as a condition of painting. Although you apply paints onto canvas directly from the tubes without mixing them, the colors on a canvas summon the "representation" of painting. With your coloring-based work, what suggestions would you like to make as a painter?

MeeNa PARK Currently tube paints, unlike pigments, are like any other consumer products. Like those endless "New Arrivals" in stores, new colors come and go continuously. "Representation" is a concept used to describe a form realistically, capture a changing moment in response to the sunlight, and express the artist's own sensibility. But I wondered if it could be expanded to a story of "representation," which records all paints available at the present time, serving as the "available range" of the era.

Soyeon AHN The work is classified into nine colors, and these nine categories are a universal way to classify colors as well. The ways you organize and arrange colors are seemingly difficult to understand, but are very interesting. Aren't they related to the Technicolor process of the past, the metaverse of today, and the expansion of the visual spectrum?

MeeNa PARK Certain companies used to make iridescent and interference paints, which contain fluorescent and pearl pigments and thus appear to change color depending on the angle of view. But recently, almost all companies produce these paints in many colors. I think that attempts to represent new visual experiences with paint,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resins and polymer pigments. The nine categories are: Black, Blue, Green, Gray, Orange, Red, Violet, White, and Yellow.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color, names are used so much that they can be classified and grouped. For example, brown is included in the *Names of Colors*, but not in the survey of paints. It is because historically brown has been indicated by the names of "earth" pigments such as Ocher, Sienna, and Umber.

Soyeon AHN Compressed into this seemingly simple work, is the enormous amount of your research, collect and labor. It also embodies multiple layers of clues to infer sociocultural issues in real life, such as substance, industrial system, structured language, and social customs. I'm referring to the nine handmade posters that provide information on the 1134 types of paints as well as their names. It's interesting how the paints names sound more like literary descriptions or verses, rather than visual information.

MeeNa PARK The *2023-Color-Color List* (2023) lined up 1134 paints and *Names of Colors* (1997) are not only years apart, but are also different since they employ objective and subjective classification method, as well as respectively

화이트(Garden Rose White), 평화로운 흰색(Peaceful White), 휘핑 화이트(Whipped White), 모네 라일락(Monet Lilic), 진심 어린 흰색(Heartfelt White), 복숭아 한 꼬집(Peach Pinch) 등의 색상명을 읽다 보면 이름이 보여주는 사회적 스테레오타입과 미술사와의 관계, 문학적이며 풍부한 감수성이 시를 읽는 것 같아 재미있었습니다.

안소연 물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방법으로 스트라이프가 활용되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줄곧 작업에 등장하는 형식이기도 한데요, 스트라이프에 부여된 의미나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박미나 스트라이프에 특별한 의미나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프의 가로나 세로 방향에도 특별한 의미는 없고, 수(數)로 접근하였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가 먼저 물감을 모두 사서 색상별로 정리하고 총개수를 2cm로 곱해서 대략의 캔버스 크기로 설정한 후, 가로나 세로 한 쪽 길이를 기준으로 같은 크기 가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9개의 각각 다른 색과 다른 가구로 매칭해가며, 가로 폭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세로로 다시 찾고, 가구가 결정되면, 가구 폭으로 캔버스 크기를 확정합니다. 다시 캔버스 길이를 색상 총수로 나누면 스트라이프 두께가 결정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 스트라이프는 2.18~1.13 cm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감의 개수로 나누는 과정에서 같은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상하좌우 우열을 가리지 않고 판단과 선택을 최소화하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스트라이프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안소연 컬러 스트라이프로 된 일종의 추상화는 구상적인 가구 도상과 짝을 이뤄 제시됩니다. 정보를 취합하고 시각적 기호들을 배열하는 작가만의 고유한 규칙이 작용한 결과인데, 그 단초가 된 *오렌지 페인팅*(2003)에 대한 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군요.

박미나 2002년 '오렌지' 그림을 찾는 갤러리에서 전화 통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학교에서의 고민을 색을 주축으로 회화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캔버스의 크기를 결정하고, 사용할 물감을 선택하고, 어디에 배치될 것을 예상하여 생활 공간에서 맞춤형 최대 크기로 제작하면 그 범주가 시각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만들었습니다. 배치한 가구 또한 사물을 그리는 가장 기본일 수 있는 테크니컬 드로잉으로 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한 다이어그램으로 전달하며 '기초 재현 그림'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안소연 *오렌지 페인팅*을 시작으로 컬러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공간의 기물과 결합해 제시하는 소위 '만능 회화'(평론가 임근준의 명명)는 장소특정적인 설치 작업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박미나 2003년 아트선재센터(Art Sonje Center)의 초대로 중국 상하이에서 "양광찬란" 전시에 *창화길 826번지에서 모가샨길 50번지까지* 벽화를 그렸는데, 그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10일가량 상하이에 머물면서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전시 후 폐기되는 기획이었고, 1996년에 *프로비던스(Providence)*와 *95고속도로(I-95)* 회화로 '시간을 함축한 풍경화' 실험인 *색상 풍경(Color Landscape)* 시리즈를 진행하였었는데, 그 작업

artists' paint and interior paint. I began the recent nine works, including *2023-Black-Color List*, by first lining up paint manufacturers and color names alphabetically. After silkscreening them on A1 size paper, next to each name I painted each color with a brush. The first twenty pieces that I made in 1997 were inkjet printed on Letter size paper, on which I pasted some of the paint color swatches that I had cut out with a punch. The pieces were remade recently for this exhibition. I found it interesting how Home Depot, an American building materials retail company, has created for DIY non-professionals make-believe images of poetic interior sensibilities that can be created with paint. In *Names of Colors*, I subjectively categorized and classified subtle differences between yellow and white paints, trying to decide where white ends and where yellow begins. It was also amusing to read color names such as "Design Studio White", "Garden Rose White", "Peaceful White", "Whipped White", "Monet Lilac", "Heartfelt White", and "Peace Pinch"; they evoked with rich literary sensibil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ereotypes and art history, and are read like poetry.

Soyeon AHN You use stripes as a way of organizing and classifying the paints. Not only is it probably the most rational method, but stripes have also been constantly present in your work since your school days. Are there any meanings or references attributed to your use of stripes?

MeeNa PARK There's no special meaning or reference to the stripes nor in their horizontal or vertical directions. I approach them as numbers. I begin work by purchasing all the paints and organizing them by color. For each color category, I multiply the total number of paints by 2 cm to set the approximate size of the canvas. Then, based on either its length or width, I search a furniture piece of the same size. The same process is applied to the 9 different color categories, resulting in 9 different sized furnishings. If I can't find furniture with the width dimension, then I try with the length dimension. When a furniture piece is determined, the canvas size is determined according to its width. Then the canvas's length is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colors to determine the width of the stripe. As a result, the stripes are now about 2.18 ~ 1.13 cm. I use stripes because I think they are optimal for this process; I can divide and multiply and arrange in order while minimizing my judgment or preference.

Soyeon AHN You present the colored stripes, which are a kind of abstract paintings, paired with figurative furniture diagrams. And this also is the result of your self-set rules for gathering information and arranging visual signs. Can you talk about your *Orange Painting* (2003), which was your starting point?

MeeNa PARK It started in 2002 with a phone call from a gallery looking for an "orange painting." After obtaining my master's degree, I started hoping a painting centered on the issue of color. I thought that if I make a customizable maximum size painting for a living space by anticipating

프로세스와 *오렌지 페인팅*의 방법이 결합하여 장소특정적인 벽화 작업이 만들어졌습니다. 풍경의 색을 면적의 합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특정 주소 간 이동하며 수집한 색의 개수를 같은 면적으로 나누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색 정보를 동일하게 또는 면적 대비로 접근한 사례입니다.

안소연 그림의 장식적인 용도나 그것이 배치되는 일상 공간과의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주거문화나 취향, 소비패턴에 대한 리서치로 확장됩니다. 실제로 2004년작에서는 강남의 고층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를 본보기 삼은 반면, 이번 전시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의 최고가 아파트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감지되었나요?

박미나 2004년의 주거 공간은 일반아파트로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삶의 기준과 표본같이 하나의 지향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내 천장고는 230cm이고, 몇 개의 평형대로 분류되는 특징을 가졌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 '명품', '플렉스'의 일상생활은 SNS로 쏟아졌고, 공공주택, 생활공간, 가구 트렌드는 '최고급'을 선호하며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은 고가 브랜드 공공주택 중 대표 격인 곳에 사시는 분을 섭외하여 집에 방문해 실제 실내 구조, 가구 배치, 시스템 장 종류와 크기, 천장 높이, 벽 길이 등을 조사하며 시작하였습니다. 260cm 천장고에 맞추어 캔버스 크기를 정하고 마스터룸, 드레스룸, 거실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를 회화로 옮겨 전시 공간에 펼칠 계획을 하였습니다.

안소연 그림을 소비하는 계층이 욕망하는 가구들은 SNS를 통해 단편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모델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한동안 럭셔리 잡지를 구독하며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홉 개의 컬러와 짝을 이룬 가구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박미나 팬데믹 기간 해외 명품 브랜드 가구의 소비가 인테리어와 함께 급증한다는 기사들과 해외 유명 가구 브랜드 매장이 오픈했고, 백화점 생활전문관의 리빙 매장의 규모 확장, 팝업스토어가 증가하였는데, 한국에 수입되고, '현재 유행 중이고', '유명한' 가구들을 찾는 방법으로 럭셔리 잡지들에서 소개하는 가구로 선택하였습니다.

안소연 가구들의 다이어그램은 제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면에서 유래합니다. 박미나 작가가 형상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이미지를 파악하고 다루는 본인만의 방법론에 대해 공유해 주세요.

박미나 예전에 비해 가구를 도식화하여 수치를 정교하게 표기하고, 3D로 구현해 사방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브랜드가 대부분이어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브랜드에서는 제품 시트, 데이터 시트 등으로 부르며 많은 브랜드가 본사 사이트에 이를 공개합니다. 몇몇 사이트에만 없었는데,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며 요청하는 방식이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남기면 책으로 된 카탈로그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구 다이어그램에 곡면이 있는데, 최근 고가의 가구 경우 2004년에 비해 유선형이 많은 점을 적극적으로 그림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소연 물감이건 도상이건 작업의 핵심은 세계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운용하는 것 입니다. 데이터화를 위해 조사와 수집의 단계는 필수적이며

the canvas size, the paints as well as the hanging location, the scope would be visualized. For the furniture part, I employed technical drawings, which is the most basic way of drawing objects, seeking to convey the information through detailed and accurate diagrams.

Soyeon AHN Starting with the *Orange Painting*, your "almighty painting" work (as critic Lim Geun-jun has called it) involves researching and collecting colors and pairing them with objects in space, developed into site-specific installations. Can you give us some examples?

MeeNa PARK In 2003, at the invitation of the Art Sonje Center, I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Yangguang Canlan," in Shanghai where I painted a first mural titled *From 826 Changhua Road to 50 Moganshan Road*. My plan was to produce the artwork during the 10-day stay in Shanghai and to discard it after the exhibition. Back in 1996, I had produced *Providence* and *I-95* as part of my *Color Landscape* series, conceived as experimental landscape paintings implying time. *Orange Painting* was combined to it in order to create the site-specific mural.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method of calculating a landscape's colors as the average of the sum of the surface area and the method of dividing the number of colors collected from select stores by the same surface area. During the mural production, the color information was approached equally or according to the surface of the wall.

Soyeon AHN Co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decorative use of a painting and its display on commonplace space can be expanded to the research on the residential culture, tastes, and the consumption pattern in Korean society. In fact, your 2004 work took a reference from a model house of a high-rise apartment building in Gangnam. And in preparation of this exhibition, you conducted a research on Seoul's most expensive apartment. Have you detected any changes?

MeeNa PARK It seemed to me that the generally perceived notion of residential space in 2004 was an ordinary apartment serving as a standard and ideal for middle-class families. The indoor ceiling height was 230 cm and could be compartmentalized into several countertops. Since the pandemic and the social media flooding the market with "best," "luxury," and "flex" everyday life, things changed a lot. Now, the public housing, living space, and furniture trends are preferred to be "high-end." I began my work by contacting, an apartment complex representative of the expensive housing brands. I visited the house and investigated its interior structure and furniture arrangement, measuring the types and sizes of the system cabinets, the ceiling height, and the wall lengths. According to its 260 cm ceiling height, I determined the size of the canvas, onto which I would "transfer" the furniture suitable for the house's master room, dressing room, and living room.

Soyeon AHN Through social media, we can get

데이터를 운용하기 위해 본인만의 규칙을 설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데이터 값을 임의로 조정하지는 않죠. '포스트-미디엄 시대'를 숙고하는 회화의 대안이라고 할까요? 회화의 흐름에서 도드라지는 본인만의 작업을 하게 된 계기랄까, 화가로서 성장과정이 궁금해집니다.

박미나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시절이 1990년대인데, 과학과 예술, 사회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화두였던 시기였고, 페미니스트와 개념 미술가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외 당하던 평면 회화가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아직 재미난 이야기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소연 한꺼번에 천 개 이상의 물감을 사용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일 텐데요, 작가는 수많은 물감의 물질적인 퀄리티 차이를 경험하면서 물감을 통한 회화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미나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사용하기 너무 어려운 정도 저퀄리티의 물감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그 '질'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안료 이름의 물감은 질이 좋고, 휴(hu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딸기 '맛', 바나나 '맛' 우유와 같이 원재료는 들어있지 않고, 그 '맛'을 비슷하게 흉내 낸 것으로 질 낮은 물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료 이름의 물감이 '질'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룰린 블루(Cerulean Blue)보다 세룰린 블루 휴(Cerulean Blue Hue)의 발림이 훨씬 좋습니다. 렘브란트(1600년)의 자연 안료인 흙색(Earth colors)과 티치아노 *바쿠스와 아리아드네*(1520~23년)의 울트라마린 블루(Ultramarine Blue)의 사용법, 인상파 화가들과 튜브 물감, 프렌치 울트라마린(French Ultramarine)의 발명, 피카소 청색시대의 프러시안 블루(Prussian Blue)와의 관계 등과 같이 물감의 역사는 현재는 스포츠카 페라리 빨강(Ferrari Red)으로 알려진 피롤 레드(Pyrrole Red)까지 문화와 취향의 반영으로 시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안소연 전시는 검은 벽면의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다소 진지해진 분위기는 빛의 상징성을 강조했던 색면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전 작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이번 작품들은 어떤 시각적 경험을 관객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지요?

박미나 일반적인 화이트 큐브로써 전시 공간의 흰 벽과 젯소(gesso) 바탕인 흰 캔버스를 시각적으로 경계 지으면 차이가 분리되어 보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 검은 벽면에 작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크기와 그 면적이 주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의 최대 크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가구가 그려진 흰색 캔버스는 주거 공간에서 가구가 놓이는 벽면의 크기를, 색띠는 가구 위 그림이 걸릴 수 있는 위치와 최대 크기를 보여줍니다. 관객이 전시 공간 안에서 주거 공간을 상상하며 가구의 실제 크기와 배치, 색의 다양성의 범위 등을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fragmentary information about what types of furniture the painting-consuming class desires. But I heard that you also subscribed to luxury magazines to research and select representative examples. Please tell us more about the furniture you selected to be paired with the nine colors.

MeeNa PARK During the pandemic, famous foreign furniture brands began to open stores in Korea, along with the news articles reporting a swelling consumption of luxury brand furniture and interior products. Department stores expanded their Home and Living sections and increased pop-up stores. I read luxury magazines, searching for furniture pieces that were available in Korea and "in vogue" and "famous."

Soyeon AHN You derived the furniture diagrams from the brands' websites. That's how you typically approach forms. Please tell us about your way of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 images.

MeeNa PARK These days, most brands diagrammatize their products, marking the figures in detail and providing them in 3D, so they can be seen from all sides. It made my research quite easy. The companies publish the so-called "product sheets" or "data sheets" on their websites. Only a few sites are not providing them, but if you request it by entering your email address or other contact information, they mail their catalogs to you. Expensive furniture pieces now tend to have more streamlined shapes than those in 2004, so I reflected that in the works.

Soyeon AHN Whether it's paint or image, the core of your work is to understand and employ the world as data.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are essential steps in dataization, and while you set your own rules for working with data, you don't arbitrarily adjust the data values. Shall we call it an alternative painting that contemplates the post-medium era? I'm curious to know how you have developed as a painter, what has motivated you to come up with your style – which stands out in the shifting currents of art.

MeeNa PARK I'm not sure if there has been any special trigger. I went to a college in the 1990s, when major talking points were art and science, collective identity and individual identity, and was taught by feminist professors and conceptual artists. Back then, I was drawn to the notion of flat painting. This theme was being avoided but I thought there still might be interesting stories to come out of it.

Soyeon AHN I guess that using a thousand paints in a work is unprecedented. You once said that your experience of the differences in numerous paints' material qualities led you to think about the history of painting through paints.

MeeNa PARK There are many low-quality paints out there that I would hardly use. But now "quality"' is a different thing from the past. In the past, if a pigment was stated in the name of the paint, it was a good-quality paint, and if a paint name includes the word "hue,"' that meant it was a low-quality paint, like strawberry-flavor or banana-flavor milk that mimics the fruit's taste without containing the fruit. However, today, pigment named paints do not guarantee good quality. For example, "Cerulean Blue Hue" can be more easily applied than "Cerulean Blue" does. Moreover, I think the history of paints is closely connected to the era as it reflects the cultures and tastes: for instance, Rembrandt's (1600) use of Earth colors which were natural pigments; Titian's use of Ultramarine Blue in *Bacchus and Ariadne* (1520-23); Impressionist painters' use of tube pai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ntion of French Ultramarine and Picasso's use of Prussian Blue during his Blue Period; and the emergence of Pyrrole Red known as "Ferrari Red."

Soyeon AHN The walls in the exhibition space are painted in black, and the calm mood reminds us of the works by Color Field abstract painters who stressed the symbolism of light. With these new works, which are clearly a step forward from your previous works, what kind of visual experience do you want to offer to your audience?

MeeNa PARK To stress the visual difference between the walls of the white-cube exhibition space and the white of gesso-based canvases, I decided to mount works on black walls. The artwork's size and its surface area indicate the maximum size of a painting that can fit in a residential space. For example, the furniture-drawn white canvas indicates the size of the wall on which the furniture would be placed in a residential space. The colored bands show where above the furniture a painting can hang, and what would be its maximum size possible. I hope the audience inside the exhibition would be able to imagine residential spaces while experiencing the furniture's actual sizes and arrangement as well as the diverse range of colors.

Installation View

Grey

Alpha
- Blue Gray
- French Gray
- Grayish Beige
- Grayish Blue
- Grayish Brown
- Grayish Green
- Grayish Purple
- Grayish Red
- Silver Gray

Amsterdam
- Grey Blue
- Neutral Grey
- Warm Grey

Chroma
- Neutral Grey
- Nimbus Grey
- Paynes Gray
- Toning Gray Medium
- Toning Gray Pinkish
- Toning Gray Yellowish

Daler
- Middle Grey
- Payne's Grey

Golden
- Graphite Gray
- Neutral Gray N2
- Neutral Gray N3
- Neutral Gray N4
- Neutral Gray N5
- Neutral Gray N6
- Neutral Gray N7
- Neutral Gray N8
- Paynes Gray

Holbein
- Grey V-3
- Grey V-5
- Grey V-7
- Grey V-8
- Payne's Grey

Lefranc
- Grey Green
- Iridescent Pink Grey
- Neutral Grey
- Payne's Gray
- Pink Grey
- Stone Grey

Liquitex
- Muted Grey
- Neutral Gray 5
- Payne's Gray

Maimeri
- Blueish Grey
- Cool Grey
- Grey Deep

Neutral Grey
- Paynes Grey
- Warm Grey

Pebeo
- Cold Grey
- Neutral Grey
- Payne's Grey

Sakura
- Cool Gray(Opaque)
- Neutral Gray(Opaque)
- Warm Gray(Opaque)

Sennelier
- Neutral Grey
- Payne's Grey
- Warm Grey

Shield
- Blue Grey
- French Grey
- Gray NO.3
- Silver Grey

Shinhan
- French Greyl

Winsor
- Davy's Gray
- Graphite Gray
- Payne's Gray

Orange

Alpha
- Fluorescent Orange
- Pearl Orange
- Permanent Orange
- Perma. Yellow Orange

Amsterdam
- Azo Orange
- Reflex Orange

Chroma
- Cadmium Orange
- Fluoro Orange
- Norwegian Orange
- Orange
- Transparent Perinone Orange
- Yellow Orange

Daler
- Benzimidazolone Orange
- Cadmium Orange
- Neon Orange
- Orange
- Perinone Orange
- Quinacridone Burnt Orange

Golden
- CP Cadmium Orange
- Fluorescent Orange
- Fluorescent Orange Yellow
- Interference Orange(Fine)
- Orange Oxide
- Pyrrole Orange
- Quinacridone Burnt Orange
- Vat Orange

Holbein
- Cadmium Orange
- Imidazolone Orange
- Luminous Orange
- Pyrrole Orange

Lefranc
- Fluorescent Orange
- Japanese Orange
- Orange

Liquitex
- Cadmium-Free Orange
- Cadmium Orange
- Pyrrole Orange
- Quinacridone Burnt Orange
- Quinacridone Red Orange
- Vivid Red Orange
- Yellow Orange Azo

Maimeri
- Brilliant Orange
- Cadmium Orange
- Cadmium Red Orange
- Fluorescent Orange
- Mars Orange
- Orange Yellow
- Permanent Orange
- Quinacridone Orange

Pebeo
- Cadmium Orange
- Cadmium Orange Hue
- Cadmium Yellow Orange
- Fluorescent Orange

- Hansa Yellow Orange
- Iridescent Orange Yellow

Rosa
- Orange

Saehan
- Permanent O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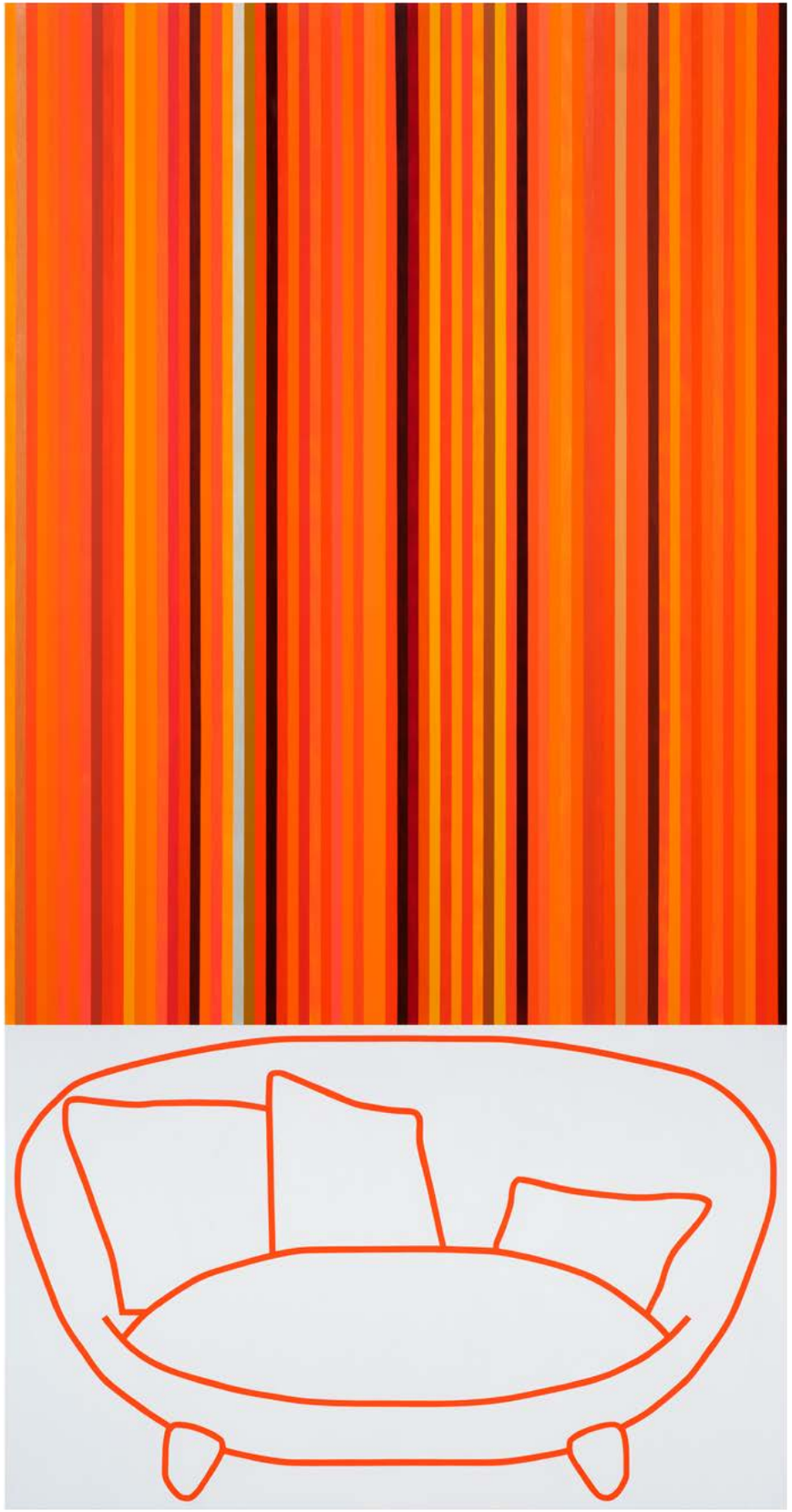
Sakura
- Pale Orange(Opaque)
- Orange(Transparent)

Sennelier
- Cadmium Red Orange Hue
- Chinese Orange
- Fluo Orange
- Red Orange

Shield
- Perma. Orange
- Fluorescent Orange

Shinhan
- Cadmium Orange
- Fluorescent Orange
- Permanent Orange
- Permanent Yellow Orange

Winsor
- Cadmium Orange
- Cadmium Orange Hue
- Pyrrole Orange
- Quinacridone Burnt Orange



Black

Alpha
- Black

Amsterdam
- Lamp Black
- Oxide Black

Chroma
- Black
- Blue Black(Indigo)
- Brown Black
- Carbon Black
- Green Black
- Mars Black
- Red Black

Daler
- Black
- Carbon Black
- Ivory Black
- Mars Black
- Metallic Black(Imit)

Holbein
- Ivory Black
- Lamp Black
- Mars Black
- Primary Black

Golden
- Bone Black
- Carbon Black
- Mars Black

Lefranc
- Black
- Mars Black

Liquitex
- Ivory Black
- Mars Black

Maimeri
- Carbon Black
- Ivory Black
- Mars Black

Pebeo
- Intense Black
- Iridescent Blue Black
- Ivory Black
- Mars Black

Rosa
- Black

Sachan
- Black

Sakura
- Carbon Black(Opaque)
- Oxide Black(Opaque)

Sennelier
- Iridescent Black
- Mars Black

Shield
- Black

Shinhan
- Black

Speedball
- Mars Black
- Warm Black

Winsor
- Ivory Black
- Lamp Black
- Mars Black

Green

Alpha

- Bright Aqua Green
- Dandelion Green
- Emerald Green(Nova)
- Fluorescent Green
- Grayish Green
- Ivy Green
- Olive Green
- Oxide Green
- Pastel Green
- Pearl Green
- Perma. Green Deep
- Perma. Green Middle
- Permanent Light Green
- Perma. Yellow Green
- Phthalocyanine Green
- Sap Green
- Spring Green

Amsterdam

- Emerald Green
- Permanent Green Deep
- Permanent Green Light
- Reflex Green
- Sap Green
- Yellowish Green

Chroma

- Antique Green
- Chromium Green Oxide
- Fluoro Green
- Forest Green
- Green Black
- Green Deep
- Green Light
- Hookers Green
- Moss Green
- Olive Green
- Permanent Sap Green
- Phthalo Green
- Pine Green
- Teal Green
- Tree Frog Green

Daler

- Bright Green
- Cobalt Chromite Blue Green Shade
- Dark Green

Red

Alpha

- Brown Red
- Chinese Red
- Coral Red
- Fluorescent Red
- Grayish Red
- Pearl Red
- Naphthol Red Light
- Venetian Red

Amsterdam

- Naphthol Red Deep
- Naphthol Red Light
- Naphthol Red Medium
- Naples Yellow Red
- Permanent Red Violet
- Permanent Red Violet Light
- Pyrrole Red

Chroma

- Cadmium Red Light
- Cadmium Red Medium
- Cool Red
- Indian Red Oxide
- Light Red Ochre
- Naphthol Red Light
- Naples Yellow Reddish
- Pyrrole Red
- Red Black
- Red Earth
- Red Gold
- Red Oxide
- Red Violet
- Transparent Red Oxide
- Warm Red

Daler

- Brilliant Red
- Cadmium Red
- Cadmium Red Deep
- Cobalt Chromite Blue Red Shade
- Light Red Oxide
- Neo Red
- Phthalo Blue Red Shade
- Pyrrole Red
- Rich Transparent Red Oxide
- Venetian Red

Golden

- Cadmium Red Dark
- Cadmium Red Light
- Cadmium Red Medium
- Cadmium Red Medium Hue
- Fluorescent Red
- Interference Red
- Naphthol Red Light
- Naphthol Red Medium
- Phthalo Blue Red Shade
- Pyrrole Red
- Pyrrole Red Dark
- Pyrrole Red Light
- Quinacridone Red
- Transparent Red Iron Oxide

Holb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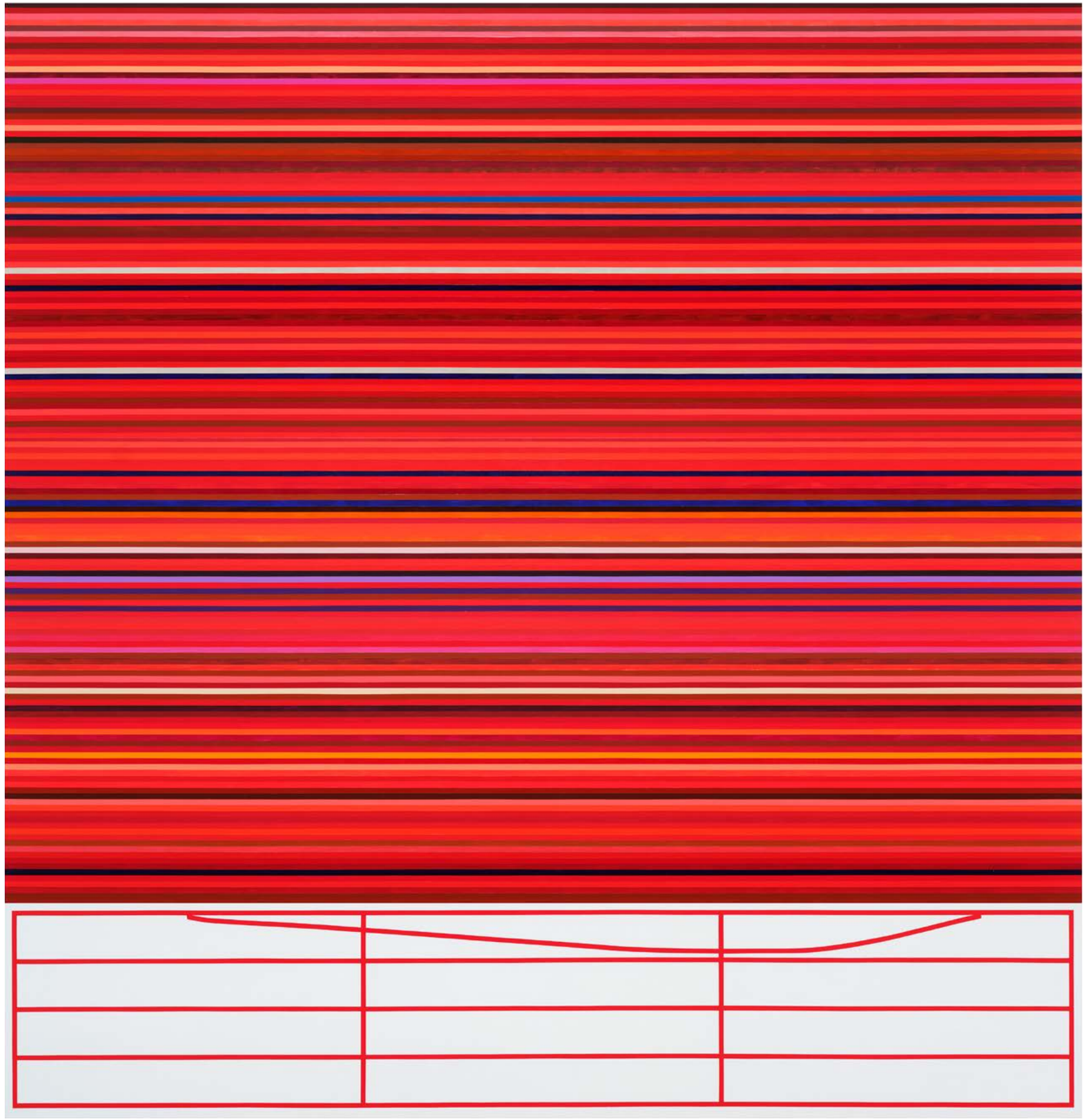
- Anthraquinone Red
- Cadmium Red
- Cadmium Red Light
- Cadmium Red Purple
- Luminous Red
- Naphthol Red
- Naphthol Red Deep
- Naphthol Red Light
- Pearl Red
- Phthalo Blue Red Shade
- Pyrrole Red
- Pyrrole Red Light
- Quinacridone Red
- Red Ochre

Lefranc

- Carmine Red
- Fluorescent Red
- Oriental Red
- Red Ochre
- Ruby Red
- Vermilion Red

Liquitex

- Cadmium-Free Red Deep
- Cadmium-Free Red Light
- Cadmium-Free Red Medium
- Cadmium Red Light
- Cadmium Red Medium



Violet

Alpha
- Pearl Violet
- Ultramarine Violet
- Violet
- Violet(Fluorescent)

Amsterdam
- Caput Mortuum Violet
- Permanent Blue Violet
- Permanent Red Violet
- Permanent Red Violet Light
- Ultramarine Violet Light

Chroma
- Blue Violet
- Brilliant Violet
- Mars Violet
- Red Violet
- Violet
- Wood Violet

Daler
- Deep Violet
- Permanent Violet
- Quinacridone Violet
- Ultramarine Violet
- Violet

Golden
- Cobalt Violet Hue
- Interference Violet(Fine)
- Light Violet
- Medium Violet
- Permanent Violet Dark
- Quinacridone Violet
- Titan Violet Pale
- Ultramarine Violet
- Violet Oxide

Holbein
- Cobalt Violet
- Compose Violet
- Dioxazine Violet
- Luminous Violet
- Mars Violet
- Quinacridone Violet

Lefranc
- Blue Violet
- Dioxazine Violet
- Mineral Violet
- Pastel Violet

Liquitex
- Deep Violet
- Light Blue Violet
- Muted Violet
- Prism Violet
- Quinacridone Blue Violet

Lukas
- Permanent Violet

Maimeri
- Brilliant Violet
- Luster Violet
- Permanent Violet Reddish
- Perm. Violet Reddish Light
- Quinacridone Violet
- Reddish Violet
- Violet
- Violet Reddish
- Violet Ultramarine

Pebeo
- Cobalt Violet Deep Hue
- Cobalt Violet Light Imit.
- Dark Cobalt Violet Hue
- Iridescent Violet Blue
- Oriental Violet
- Permanent Violet
- Thioindigo Violet

Rosa
- Violet

Saehan
- Vio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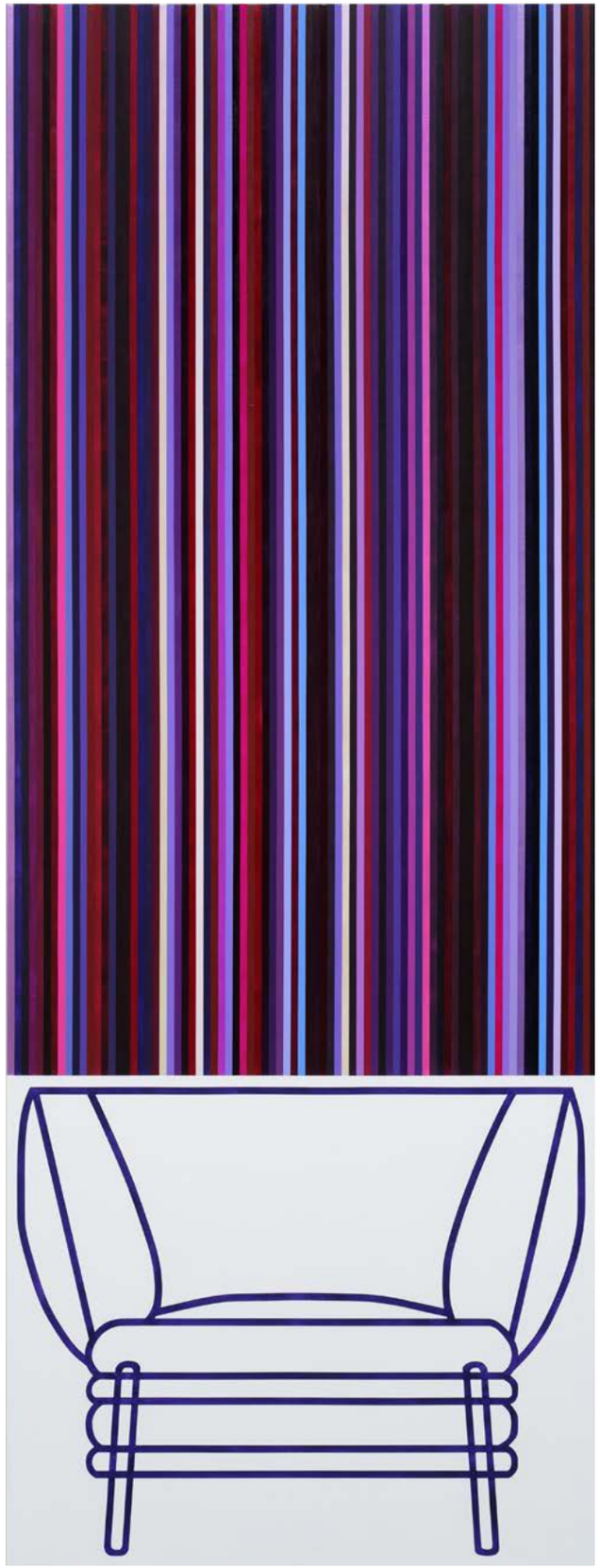
Sakura
- Blue Violet(Transparent)
- Red Violet(Transparent)
- Violet(Transparent)

Sennelier
- Light Violet

Shield
- Fluorescent Violet
- Light Violet
- Middle Violet
- Pearl Violet
- Ultramarine Violet
- Violet

Shinhan
- Light Blue Violet
- Permanent Violet

Winsor
- Pale Violet
- Perylene Violet
- Quinacridone Violet
- Ultramarine Violet
- Violet Iron Oxide
- Winsor Violet



Blue

Alpha
- Blue Gray
- Blue(Fluorescent)
- Cerulean Blue(Hue)
- Cobalt Blue(Hue)
- Grayish Blue
- Marine Blue
- Pastel Blue
- Phthalocyanine Blue
- Prussian Blue
- Sky Blue

Amsterdam
- Brilliant Blue
- Cobalt Blue(Ultram.)
- Greyish Blue
- King's Blue
- Permanent Blue Violet
- Phthalo Blue
- Prussian Blue Phthalo
- Sky Blue Light
- Turquoise Blue

Chroma
- Blue Black(Indigo)
- Blue Lagoon
- Blue Violet
- Cerulean Blue Hue
- Cobalt Blue Hue
- Colony Blue
- Cool Blue
- French Blue
- Harbour Blue
- Galaxy Blue
- Pacific Blue
- Phthalo Blue
- Prussian Blue Hue
- Sky Blue
- Storm Blue
- Ultramarine Blue
- Ultramarine Blue Deep
- Warm Blue

Daler
- Azure Blue
- Cobalt Blue

- Cobalt Chromite Blue Green Shade
- Cobalt Chromite Blue Red Shade
- Dark Blue
- Light Blue
- Manganese Blue Hue
- Phthalo Blue(Green Shade)
- Phthalo Blue Red Shade
- Prussian Blue Hue
- Ultramarine Blue Green Shade

Golden
- Anthraquinone Blue
- Cerulean Blue Chromium
- Cerulean Blue Deep
- Cobalt Blue
- Cobalt Blue Hue
- Fluorescent Blue
- Interference Blue(Coarse)
- Light Green(Blue Shade)
- Light Ultramarine Blue
- Manganese Blue Hue
- Phthalo Blue Green Shade
- Phthalo Blue Red Shade
- Phthalo Green(Blue Shade)
- Prussian Blue Hue
- Ultramarine Blue

Holbein
- Aqua Blue
- Cerulean Blue
- Cobalt Blue
- Cobalt Blue Hue
- Compose Blue No.1
- Compose Blue No.2
- Indanthrene Blue
- Manganese Blue Nova
- Pearl Blue
- Phthalo B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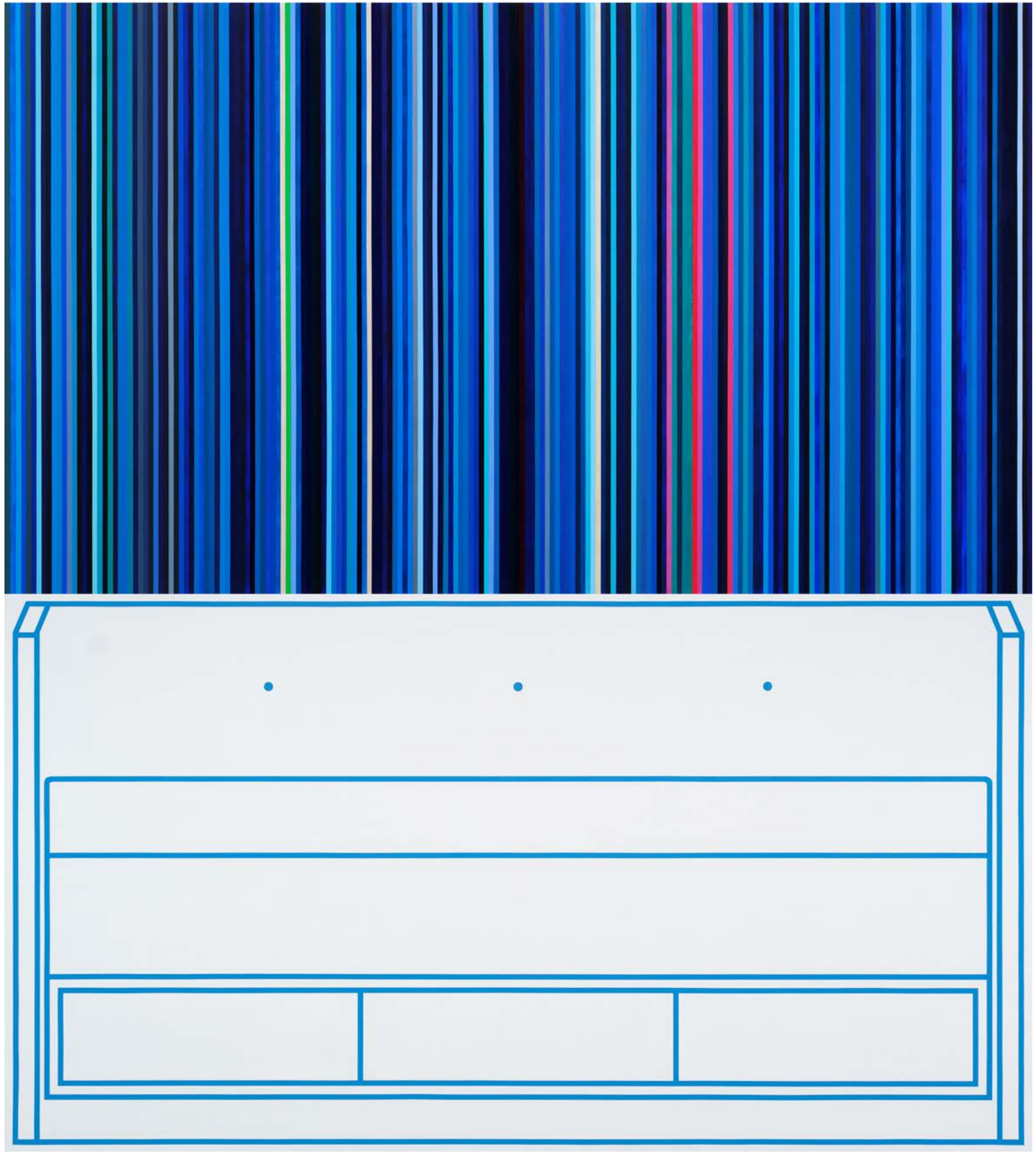
Lukas
- Cerulean Blue

Maimeri
- Brilliant Blue
- Blueish Grey
- Cerulean Blue

- Cerulean Blue
- Cerulean Blue Hue
- Cobalt Blue
- Cobalt Blue Deep(Hue)
- Cobalt Blue(Hue)
- Green Blue
- Iridescent Blue
- King's Blue
- King's Blue Light
- Luster Blue
- Manganese Blue(Hue)
- Navy Blue
- Permanent Blue Light
- Phthalo Blue
- Primary Blue Cyan
- Prussian Blue
- Sky Blue Light

Pebeo
- Blue-Green Dyna
- Blue-Violet Dyna
- Cerulean Blue
- Cobalt Blue
- Cosmos Blue
- Dark Ultramarine Blue
- Fuchsia-Blue Dyna
- Green-Blue Dyna
- Iridescent Blue Black
- Iridescent Blue Green
- Iridescent Green Blue
- Iridescent Red Blue
- Iridescent Violet Blue
- Opaque Cobalt Blue Hue
- Opaque Light Ultramarine Blue
- Orient Blue
- Phthalocyanine Blue
- Prussian Blue Hue
- Red-Blue Dyna
- Royal Blue
- Steel Blue
- Turquoise Blue

Rosa
- Cobalt Blue
- Phthalo Blue
- Ultra Blue Deep



White

Alpha
- Pearl White
- Titanium White

Amsterdam
- Titanium White
- Zinc White

Chroma
- Pearl White
- Soft White
- Tinting White(Pearl White)
- Titanium White
- Warm White
- White

Daler
- Metallic White(Imit.)
- Titanium White
- White
- Zinc White

Golden
- Titanium White
- Zinc White

Holbein
- Pearl White
- Primary White
- Titanium White
- Zinc White

Lefranc
- Fluorescent White
- Iridescent Pearl White
- Titanium White
- White

Liquitex
- Iridescent White
- Titanium White
- Transparent Mixing White

Maimeri
- Iridescent White
- Ivory White
- Platinum White
- Titanium White
- Zinc White

Pebeo
- Titanium White

Rosa
- White

Saehan
- Titanium White

Sakura
- Titanium White(Opaque)

Sennelier
- Titanium White

Shield
- Mixing White
- Pearl White
- White

Shinhan
- Pearl White
- Titanium White

Winsor
- Iridescent White
- Mixing White
- Titanium White

Yellow

Alp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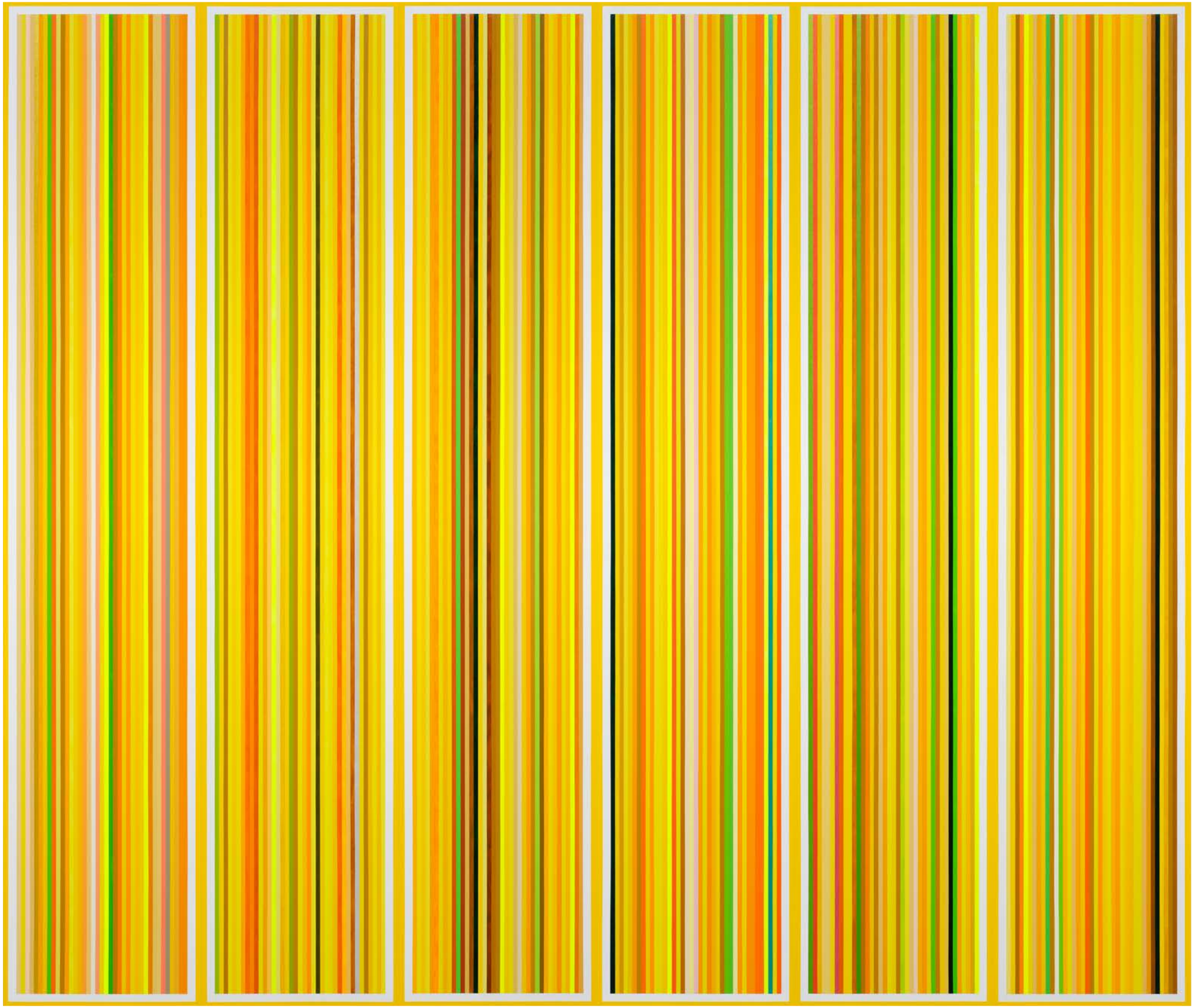
- Ivory Yellow
- Lemon Yellow
- Maize Yellow
- Naples Yellow
- Pearl Yellow
- Permanent Yellow Deep
- Permanent Yellow Light
- Perma. Yellow Green
- Perma. Yellow Orange
- Titan Yellow
- Yellow Ochre

Amsterdam

- Azo Yellow Deep
- Azo Yellow Lemon
- Azo Yellow Light
- Azo Yellow Medium
- Gold Yellow
- Naples Yellow Deep
- Naples Yellow Light
- Naples Yellow Red
- Primary Yellow
- Reflex Yellow
- Yellowish Green
- Yellow Ochre

Chroma

- Arylamide Yellow Deep
- Arylamide Yellow Light
- Cadmium Yellow Deep
- Cadmium Yellow Light
- Cadmium Yellow Medium
- Cool Yellow
- Fluoro Yellow
- Indian Yellow
- Naples Yellow
- Naples Yellow Hue
- Naples Yellow Reddish
- Toning Gray Yellowish
- Transparent Yellow
- Turners Yellow
- Warm Yellow
- Yellow Deep
- Yellow Green



Installation view of *2023-Color-Color List*

Installation view of *Names of Colors*, 2023

Installation View

박미나(1973년생)

1999 헌터 대학, 뉴욕 시립대학원 회화과 석사
1997 로드 아일랜드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주요 개인전

2023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한국
— “꿈의 상상”, 서울상상나라, 서울, 한국
2020 “왜 빗방울은 푸른 얼굴의 황금 곰과 서커스에서 겹쳤을까?”, 시청각랩, 서울, 한국
2019 “스크림”, OTI갤러리, 홍콩, 중국
2017 “빨주노초파남보”, 경주예술의전당, 경주, 한국
2016 “스크림”, 시청각랩, 서울, 한국
— “빨주노초파남보”,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5 “24과 36” 회색, 갤러리 엠, 서울, 한국
2013-4 “회색과 12”, 국제갤러리, 서울, 한국
2012 “드로잉 1998-2012”,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 “회색 하늘”,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2020 “BCGKMRY”, 국제갤러리, 서울, 한국
2009 “(?_?)(=_+)(+_+)”, 코리아아트센터, 부산, 한국
2008 “파랑, 초록과 빨간”, 김진혜 갤러리, 서울, 한국
2007 “홈스위트홈”,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서울, 한국
2005 “스크림”,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한국
2004 “박미나”, 신도리코 문화공간, 서울, 한국
2002 “박미나”, 서울옥션하우스, 서울, 한국
1996 “박미나”, 밴슨홀 갤러리,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미국

주요 단체전

2023 “정물도시”, 세화미술관, 서울, 한국
2022 “시적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21 “오픈코드”,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한국
2020 2020“홈워크”,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 “신나는 빛깔 마당”,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이 공간, 그 장소:헤테로토피아”, 대림미술관, 서울, 한국
2019 “에이징 월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데케이드 스튜디오”,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2018 “플랫랜드”,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 “일상의 예술: 오브제”, 뮤지엄산, 원주, 한국
2017 “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동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덕후 프로젝트: 몰입하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6 “과천 30주년 기념 특별전: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2015-6 “평면탐구: 유닛, 레이어, 노스탤지어”,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14 “사물학: 디자인과 예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 “스펙트럼 스펙트럼”, 삼성미술관 플라토, 서울, 한국

MEENA PARK

1999 M.F.A. Painting Hunter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997 B.F.A. Painting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SELECTED SOLO EXHIBITION

2023 “Nine Colors and Nine Furniture”, Atelier Hermès, Seoul, South Korea
— “Dream Imagination”, Seoul Children’s Museum, Seoul, South Korea
2020 “Why rain drop overlapped blue faces golden bear at the circus?”, AVP Lab, Seoul, South Korea
2019 “Scream”, Over the Influence Gallery, Hong Kong, China
2017 “MeeNa Park: Artist’s Palette”, Gyeongju Arts Center, Gyeongju, South Korea
2016 “Scream”, Visual Audio Pavilion, Seoul, South Korea
— “MeeNa Park: Artist’s Palette”, SeMA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5 “24 & 36 Grays”, Gallery em, Seoul, South Korea
2013-4 “Grey & 12”, Kukje Gallery, Seoul, South Korea
2012 “Drawings 1998- 2012”, Doosan Gallery, Seoul, South Korea
— “Gray Sky”, Doosan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2020 “BCGKMRY”, Kukje Gallery, Seoul, South Korea
2009 “(?_?)(=_+)(+_+)”, Koreart Center, Busan, South Korea
2008 “Blue, Green & Red”, Kim Jinhye Gallery, Seoul, South Korea
2007 “Home Sweet Home”, Project Space Sarubia Dabang, Seoul, South Korea
2005 “Scream”, One and J. Gallery, Seoul, South Korea
2004 “MeeNa Park”, Sindoricoh Gallery, Seoul, South Korea
2002 “MeeNa Park”, Seoul Auction House, Chungdam, Seoul, South Korea
1996 “MeeNa Park”, Benson Hall Gallery, Providence, Rhode Island, United State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3 “Still-Life Still City”, Sehwa Museum, Seoul, South Korea
2022 “The Poetic Collec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21 “Open Codes”, Nam June Paik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2020 “Homework”, Art Sonje Center, Seoul, South Korea
— “Diving into the Col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 “No Space, Just a Place”, Daelim Museum, Seoul, South Korea
2019 “Aging World”, SeMa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 “10th Anniversary Exhibition: Decade Studio”,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United States
2018 “Flatland”, Kumho Museum, Seoul, South Korea
— “Art of Everyday: Object”, Museum San, Wonju, Gangwon-do, South Korea
2017 “Samramansa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Gwacheon, Gyeonggi-do, South Korea
— “Project Dukhoo: Finding Flow”, Seoul Museum of Art Bukseoul Museum, Seoul, South Korea
2016 “MMCA Gwacheon, 30 Years 1986-2016: As the Moon Waxes and Wan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Gyeonggi-do, South Korea
2015-6 “Crossing Plane: Unit, Layer, Nostalgia”, Ilmin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4 “Objectology-Design and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Gyeonggi-do, South Korea
— “Spectrum Spectrum”,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 Special thanks to Linda Yu and Joon Hong Hur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TELIER HERMÈS

에르메스 재단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창작활동 및 예술, 환경 보존, 사회연대의 영역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공유지식을 개발하고, 공익을 위한 과정을 활성화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재단 이사장을, 로랑 페쥬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A commitment to this unifying statement drives everything we do at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ut another way, individual actions nurture growth and well-being for us all. The Foundation puts in plac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transmission of skills and know-how, the creation of new work across the arts, the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and the encouragement of social solidarity, through several programmes designed to accompany its beneficiaries as they build tomorrow’s world. Together, these actions reflect our fundamental aims: to cultivate shared intelligence, harness progress for the greater good, and enshrine humanitarian values at the heart of today’s society. Established in 2008,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s directed by Laurent Pejoux, and presided by Olivier Fournier.

아뜰리에 에르메스

아뜰리에 에르메스는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뜰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뜰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용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뜰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and Tokyo.

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ondationHermes #에르메스재단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지하 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 3015 3248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7시
매주 수요일 및 추석 연휴
(9월 29일, 30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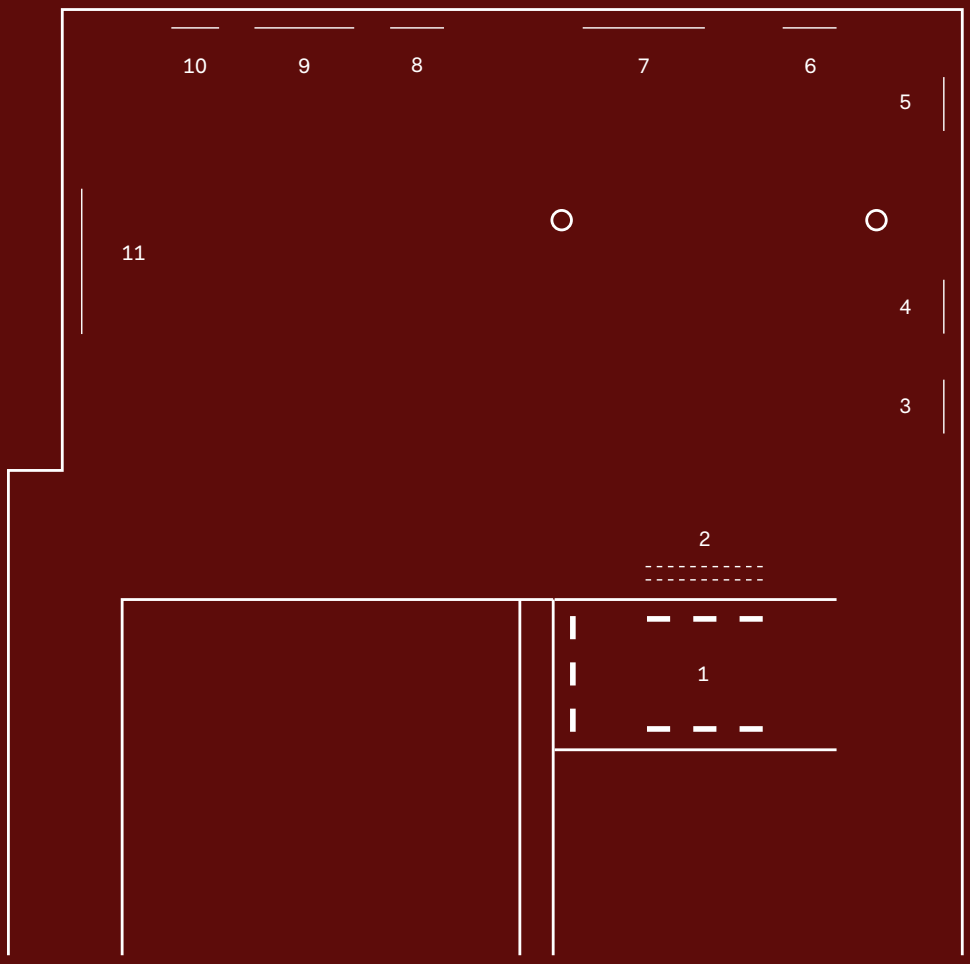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T. 02 3015 3248
Opening hours: 11am–7pm
Closed on Wednesdays and Chuseok Holidays
(September 29, 30)

MAISONHERMES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es #아뜰리에에르메스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Anaïs KOENIG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HERMÈS KOREA
Managing Director: Sung Hun HAN
Communication Director: In Hae YEO
Exhibition Manager: Hyejo YUM
Communication Coordinator: Soo Min CHO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Soyeon AHN
Graphic Designer: Yesung ENG
Translator: Soojin LEE
Silk Screen Printer: Joohong KANG
Exhibition Photographer: Sangtae KIM



1 *2023-색-리스트*, 종이에 실크 스크린, 아크릴, 9점
2023-Color-Color List, Acrylic on silkscreened paper, 9 each, 84×60 cm, 2023

2 *색상의 명칭들*, 피그먼트 프린트 종이에 페인트 색상 스와치, 총 20점
Names of Colors, House paint swatches on pigment printed paper, 20 pieces, 27.94×21.59 cm, 2023(1997)

3 *2023-회색-테이블*, 캔버스에 아크릴
2023-Gray-Table, Acrylic on canvas, 257×144 cm, 2023

4 *2023-오렌지색-소파*, 캔버스에 아크릴
2023-Orange-Sofa, Acrylic on canvas, 257×133 cm, 2023

5 *2023-검은색-커피테이블*, 캔버스에 아크릴
2023-Black-Coffeetable, Acrylic on canvas, 257×99 cm, 2023

6 *2023-녹색-소파*, 캔버스에 아크릴
2023-Green-Sofa, Acrylic on canvas, 257×290 cm, 2023

7 *2023-빨강색-TV유닛*, 캔버스에 아크릴
2023-Red-TV Unit, Acrylic on canvas, 257×247 cm, 2023

8 *2023-보라색-라운지*, 캔버스에 아크릴
2023-Violet-Lounge, Acrylic on canvas, 257×97 cm, 2023

9 *2023-파란색-침대*, 캔버스에 아크릴
2023-Blue-Bed, Acrylic on canvas, 257×229 cm, 2023

10 *2023-흰색-오토만*, 캔버스에 아크릴
2023-White-Ottoman, Acrylic on canvas, 257×59 cm, 2023

11 *2023-노란색-옷장*, 캔버스에 아크릴
2023-Yellow-Wardrobe, Acrylic on canvas, 257×304 cm, 2023